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겨울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수칙 홍보

부안군이 올해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겨울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12~3월 겨울철 야생멧돼지 출몰이 빈번하고 먹이를 찾아 축사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문자 발송 및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에서 열선 및 소독기 노출 보온덮개 설치 등을 통해 소독기 동파를 방지하기, 산비탈 근처에 위치한 농장은 눈이 녹으면서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 정비, 축산관계자의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방문의 금지, 눈이 예보되거나 내리는 동안 축사 내부 소독, 눈이 그친 뒤 농장 입구에 생석회 도포,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 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농장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봉덕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작

부안군은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부안봉덕에 조성된 공공실버주택은 지하1층, 지상10층, 총 80세대(28㎡)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이며, 1층에는 입주자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관과 2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모집은 추후 공개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1층 접수처에서 현장접수로만 진행할 예정이며, 무주택·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3월 4일 예비입주자 20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창안대회 성과공유회 개최

정읍시, 마을·공동체가 함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 제시

정읍시와 (사)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가 주관한 2024년 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 공동체 성과공유회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론 공동체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뿌리단계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10개소와 소규모 공동체 5개소가 함께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사업 사례가 발표되며 공동체 간 네트워크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커밍숲'이 선보인 청소년 캠프 투어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과 문화 유산을 탐방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활동으로,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주민이 주도한 환경 정비 사업,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규모 활동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 주도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민창안대회 뿌리단계를 통해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공동체를 발굴해, 줄기단계와 열매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주민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과 마을 만들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상생 협력의 모델을 통해 시민창안대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업재난지원금 32억5000만원 지급

벼멸구·인삼 폭염 피해농가 등 3개

고창군이 지난 9월 호우로 인한 벼 쓰러짐과 벼멸구, 인삼 폭염 피해농가 총 2008명에 대해 32억5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줬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벼멸구와 벼도복 피해면적은 1711ha로 군 전체 벼 재배면적 1만1094ha의 약 16%였다. 특히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가 중첩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이후 올해 벼멸구 피해가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됐고, 10월8~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1475ha에 군비 2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4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줬다.

또한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인삼폭염 피해가 2018년 이후 6년여만에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고창지역 인삼 재배 204농가에 16억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고창군은 전체면적의 40.4%가 농경지로, 38.3%가 농업인인 전형적인 농군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재

해보험료 군비지원을 확대했다. 2022년도 농가 자부담 20%에서 2024년 현재 10%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북도내 14개 시군비 지원액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한 사계절 영농이 가능한 시설하우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고창군에서는 매년 90여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가림하우스 신축과 스마트팜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해발생시 적극적인 피해조사와 지원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정읍시, '샘물 같은 비타민대학' 성황리에 마무리

정읍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입문자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3일 청춘활력소(연지3길 189-4)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입문자 교육 '샘물(井邑)같은 비타(市)민대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입문을 희망하는 정읍시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플래닛 지역컨텐츠 양선경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마을기업 입문 절차와 자격 조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소셜비즈니스 이용민 대표가 사회적경제기

업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다.

이번 교육에는 총 20명의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 수강생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입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 횟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예술 발전 소통·협력의 장

부안군의회,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5일 의정실에서 지역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대표 김종문)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부안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안군의회의원을 비롯해 부안군 업무 관계자와 예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안 문화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예술인들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예술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래 의장은 "부안의 문화예술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며 "예술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행렬 이어져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물결치고 있다.

시민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주)소프트아쿠아 장희정 대표가 300만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홍성욱)가 200만원, 근로복지공단 정읍어린이집(원장 모용희)이 100만원, (주)대한고속(대표이사 이호진)이 300만원을 기탁했다.

하북동 2산업단지(주)소프트아쿠아는 수처리 및 환경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장희정 대표는 "우리 미래 주역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욱 지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고 말했다

유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으겠다"며 장학금 기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협회는 지역 내 80개의 공인중개소가 가입해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읍어린이집은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폴리마켓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모용희 원장은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며 "지역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대한고속은 이번에 7번째 장학기금을 기탁하며, 이날 장학금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들개 전문 포획단 운영

전북 고창군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 들개의 집중 포획에 나선다. 특히 급증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동물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야생화된 유기견(이하 들개)을 전문적으로 포획·구조하는 단위를 모집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고창군 관내 들개 관련 민원 신고는 발작물·비닐 훼손 배설물 가축 피해, 개몰림 등을 한해에만 300건에 달하고 있다.

야생 들개의 경우, 경계가 심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 잡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동물보호법상 유

해조수가 아닌 유기견은, 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포획할 수 있다는 점.

전문포획단은 야생동물 포획·구조 경험이 많은 군민 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물·포획망을 사용하여 들개들을 잡고 포획한 들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한다.

유기 고양이 역시 군민 인식전환 캠페인과 중성화 사업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길고양이 포획은 중성화 사업 시행, 동물 구조에만 허용된다. 또 중성화 수술이나 치료 이후 해당 서식지에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한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